

News

가계대출 한달새 6조5000억 증가...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 불어

세계일보

지난달 가계대출이 2월에 비해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 이어갔다. 신용대출의 급증세 멈췄으나 주택담보가 5.7조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9.5조원으로 한 달 전(1003.1조원)보다 6.5조원 늘었다. 한편 기업 대출 잔액은 1000조원으로 2월보다 4.6조원 늘었다.

금감원, 코로나19 피해 배려한 기업대출 사실상 비조치

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실적악화를 겪은 기업을 은행이 배려해서 대출해주면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사실상 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에 일시적 타격을 입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진 기업들이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은행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보수적인 은행권도 블록체인 매력에 빠지다

아주경제

은행권이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유통에 대비해 자체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포스텍과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신한은행은 LG CNS와 CBDC 플랫폼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하나은행 또한 이달 말까지 CBDC 유통을 위한 시범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금융사 신사업 발목 잡던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논의

조선비즈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신사업을 발목 잡던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기업윤리 취지로 도입됐으나 신사업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는 문제 발생.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 등으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

보험사 소송 틈타주려 도입한 공동재보험, 계약은 한 건

조선비즈

금융당국이 보험사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지난해 6월 도입했지만, 여태껏 실제 계약 사례는 한 건에 불과. 저금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2021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IFRS17의 시행이 2023년으로 2년 미뤄졌으며, 비용이 부담돼서다.

'차일피일 미룬 사모펀드 환매 약속'...삼성생명, NH투자증권 상대로 소송

이데일리

삼성생명이 지난해 6월 환매 중단된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 판매자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5차례 걸쳐 환매를 하기로 했으나 1·2차 때부터 지연이 돼 왔다"며 "NH투자증권과의 소송 등을 통해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中 앤트그룹 개편? '속타는'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영향은

뉴스1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앤트그룹이 금융지주사로 개편되면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허가에 영향을 줄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오는 8월4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카카오페이에 대해선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2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토스증권, 50만 계좌 돌파...1株 지급 이벤트 효과 '특특'

뉴스1

14일 토스증권은 지난 3월15일 MTS를 처음 공개한 이후 1개월만에 신규로 개설한 계좌수가 55만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계좌개설을 포함해 관심종목 등록 등 일반 사용자까지 포함한 토스증권 총 사용자는 130만명을 넘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